

함께 토론해요



물사랑 칼럼

물사랑 아이디어

한 잔의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_ 김영옥 (교사)

물 한 잔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체험해 봅시다.
물 한 잔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체험하다 보면 한 방울의 물에도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야 물을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 실천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추상적인 내용으로,
1) 목마른 사람들이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2) 죽어가는 동·식물에게 한 잔의 물이 생명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체험내용으로,
1) 얼음을 얼려 나누어 먹는다.
2) 다리미질을 할 수 있다.
3) 물수건으로 얼굴, 손, 발을 씻을 수 있다.
4) 양치하고 난 물을 화분에 줄 수 있다.

한 잔의 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가족과 함께 체험해보고,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 또는 좋은 생각을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Re]

- *김동철 : 첫째, 물 한 잔으로 죽어가는 식물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정말 감동이었죠!). 둘째,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어 멈추어서기 직전에 냉각수로 보충한다면 주행 중 자동차가 멈추는 황당한 경우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선희수 : 물 한 잔으로 물총 놀이를 신나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소중한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민한나 : 저는 물 한 잔만 갖고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해보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가족과 함께 물을 한 모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도 한 잔의 물들이 수없이 버려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처럼 체험해 보세요. 물을 아껴 쓰게 될 거예요.

함께 토론해요

물사랑 칼럼



물사랑 아이디어

사랑하면 웃는 물, 미워하면 우는 물

글_ 권덕희 (공무원)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탄생시킨 근원으로서,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원이며, 세계 4대 인류 문명을 찬란히 꽃피웠던 원동력이었다. 문명의 시대가 열리기 전이나 IT산업이 세계를 움직이는 현재에도 물은 인류의 가장 귀한 친구와 연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3주 가까이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듯 물은 인류와 함께 숨쉬는 소리에서부터 걸어 다니는 소리까지 그 역사를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을 회복하여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세대의 단순한 책임의 차원을 넘어 우리 후손에 대한 신성한 사명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어느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물의 표정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했다. 사랑하면 웃는 물, 미워하면 우는 물, 보듬으면 귀여운 물로 변하는 모습을 각기 다른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그는 물에서 사랑과 진실을 찾아내어 책을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물의 신비스러움에 탄성을 지르도록 했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물을 아끼는 節水(절수), 물을 살리는 生水(생수), 물을 사랑하는 愛水(애수),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淨水(정수), 물을 가까이 하는 親水(친수)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서 웃는 모습의 물만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때라 생각한다.

우는 물을 만들기 보다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주위에서 활짝 웃는 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도 사랑하면 웃음을 주듯이 물도 사랑하면 우리에게 맑은 웃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차 마실 물 아끼기!

글_ 최수진

일상생활에서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때 물의 양을 대충 눈짐작으로 주전자에 넣어 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물이 남아요. 일본에서는 차물을 끓일 때 차잔으로 양을 재서 주전자에 담아 끓인대요. 일본 물가가 비싸서 가 소비량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대네요. 참엔 '그냥 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실천해보니까 정말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작은 양이지만 물도 절약하고 가스비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잖아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차물 절약하는 이 방법 어때요?

대변기 규격의 최소화?!

글_ 한홍구

수년 전에 물절약 캠페인을 한다며 한참동안 '대변기에 물 넣기', '물병 넣기'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참하는 사람들만 동참할 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변기나 수세식의 경우 물통의 규격을 줄인다면 '벽돌을 넣어라', '물병을 넣어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최소화 하더라도 다소 실험을 거쳐 이 정도의 물의 양이면 대변기의 용도로 충분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야겠지만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도 사용이 충분했던 것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규격은 줄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도 절약할 수 있고 화장실 공간도 조금이나마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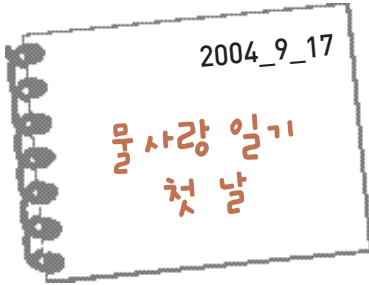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물사랑송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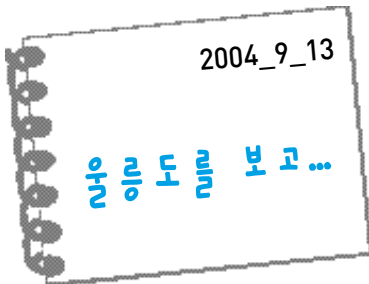
글_ 배병철

물사랑 홈페이지에서 들려오는 물사랑송을 휴대폰벨소리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건물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서 물사랑송이 울려 퍼진다면 분위기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물을 아끼려는 마음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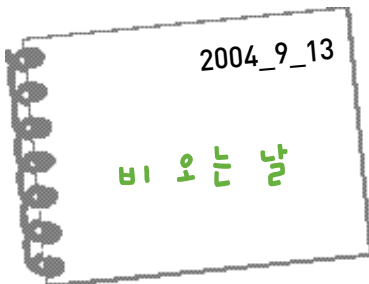
물사랑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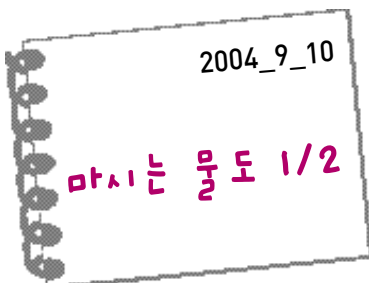
hifriya (연구개발) | 처음으로 물사랑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이곳저곳 둘러보고, 내물사랑 약속체크에 가서 절약정도도 점검 80점 획득!! ^^ 이정도면 절약생활이 몸에 밴 듯싶다. 당연하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절약이란 말을 쉽게 듣는 이곳이 딴 세상 같다. 신문 한 장만 들춰여도 사치와 가난이 대치되는 세상에 이런 곳은 별세계 같다. 앞으로 내가 재활용하고, 저축해두는 물이 어느 정도 될까?



rim313 (중학생) | 울릉도를 뉴스를 통해 보았다. 물을 험하게 써서 남은 물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그 뉴스를 보고 곰곰이 생각했다. 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TV에 나온 그런 사람들 때문일까? 하지만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나부터 시작된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가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물을 평평 쓰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울릉도 사람에게도 미안했다. 내가 물을 아껴 쓰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물에 관한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등을 하는데, 진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홈페이지에 와서 내가 깨달았다. 나는 물을 아끼는 실천을 한 것이 아니라 물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만 한 것뿐이라는 것을..



guruge (대학생/대학원생) |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여름더위가 말끔히 씻겨져 내려가는 아침이다. 요새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재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나다. 얼마 전 모 사이트 '채테크'라는 게시판에서 보게 된 절약습관 중 이런 것들이 있었다. 쌀뜨물로 세안하기, 변기물 사용하기, 화분에 물주기, 샤워나 세안할 때 물을 받아놓고 쓰기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었다. 아직까지는 전부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씩 내 몸에 배는 절약습관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Teddy92 (초등학생) | 우리 집에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먹는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다. 물을 먹을 만큼 떠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컵에 가득 따라 놓고는 남겨서 반쯤을 버리고 했다. 엄마, 아빠께서 자주 주의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단지 그때만 물을 아껴 먹은 것 같다. 내 생각에도 내가 잘못된 것이다. 마시는 물도 1/2! 씻는 물도 1/2! 물. 사. 랑. 파이팅!



2004_9_9
물은 내 친구 ..

9422041 (기타) | 오늘부터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생활해야겠다. 매일매일 물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나다보면 물이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도 알 것이다. 내가 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물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부터 난 '내 친구인 물'과 함께 할 것이다. 날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다. ^^

2004_9_8
우리 시어머님의
물 사랑

lbn1013 (주부) | 여름내 농사 지으시는 우리 시어머님의 물 사랑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지붕 처마 밑에 양동이를 놓아두고 물을 받으십니다. 여러 통 그렇게 받으셔서 리어카를 끌고 집 앞에 있는 밭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정말 커다란 고무 양동이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빗물을 모으십니다. 왜 빗물을 모으시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모아서 큰 통으로 하나 모아 두면 가을에서 밭에 고추며 깨가 타들어 갈 때 이 빗물을 주신답니다. 또 그냥 호수 연결해서 쓰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힘을 들이시냐고 하면 '아껴야 잘살지. 조금만 몸 놀리면 되는데 뭐 하러 물 버리고, 전기세 버리느냐'고 하십니다. 우리시댁은 촌인데도 물이 좀 모자라는 편이라서 상수도 묻어두고도 시어머님 맘 놓고 막 쓰시지 못하거든요. 뭐든지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맘으로는 정말 그래야지 하면서도 정작 제자신이 좀 귀찮거나 하면 그냥 막 써버리는 저를 보며 아직 '난 한참 멀었구나~ 우리 시어머님 닮아가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4_9_8
물 사랑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동안...

agnes17 (관리사무직) | 어릴 적부터 물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어왔지만, 그 생각이 실천까지 옮기려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때 접한 홍보 포스터 덕에 나는 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물을 아껴 쓰지 않음이 지금의 물 부족을 낳았다... 숨이 헉헉!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전처럼 물을 함부로 쓰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내 후손까지 마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깊이 반성하고 물을 아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인지 나는 양치질 할 때나 세수를 할 때나 꼭꼭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 어디 그뿐인가, 세탁할 때에도 세탁량이 적을시 세탁 물 사용량을 줄이는 지혜 또한 실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라사랑을 위해 물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내 자녀에게도 맑은 물을 물려주고 싶다. 더불어 물을 아껴 쓰는 실천 방안까지도!!

2004_8_25
정수기에서
흘리는 물이
아까워... T.T

akekawkd (고등학생) | 학교 정수기가 망가져 물이 계속 흘러나와 계단은 어스레 물바다로 뒤덮이고 말았다, 옛날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계속 생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계속 '정수기는 언제 고치는 걸까? 정수기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물 부족 국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 3시간 후에야 아저씨가 고치러 오셨다. 빨리 좀 오시지!!!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 그 친구들도 나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인데... 속으로 얼마나 안타깝던지... 내일 가서 친구들에게 물사랑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물을 사랑하자고 말해 봐야겠다. 하늬의 물사랑이야기~ 끝. ♪ 🔄

